




힙합거리에서 차 한잔 어때?

압구정, 종로...

눈길끄는 퓨전차집  등장

차(茶)가 젊음이 있는 거리로 나왔다. 손님을 접대하거나 의례를 치르는데 사용했던 차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젊음의 거리'로 상징되는 종로와 압구정동 일대에는 이미 대중화된 녹차는 물론 영국식 홍차와 인도, 동남아, 중국산 차를 즐길 수 있는 '티 카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압구정동에 문을 연 '티 뮤지엄'(Tea Museum)은 대표적인 티 카페. 이곳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인도를 비롯해 영국과 이집트, 남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생산된 100여 종류의 차를 만날 수 있다. 10여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벽면 가득히 진열된 차보관함(Tea Caddy)과 각양각색의 다구들에서, 20여년 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차에 관한 자료들과 각각의 차를 수집했다는 최금옥 사장의 부지런함을 눈치챌 수 있다.

이곳의 주 고객은 처음 차를 접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때문에 티뮤지움에서는 두 명의 티 어드바이저(tea adviser)가 자신에게 잘 맞는 차를 권해주고 차를 우리는 온도와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언니 대신 티뮤지움을 운영하고 있는 최병주 씨는 "흔히 차라고 하면 '녹차'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차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티뮤지움은 차의 종류와 보관법, 차에 대한 궁금증 등을 담은 홈페이지(www.teamuseum.co.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는다. "차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 하며 나누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02-515-2350)
변잡한 종로 거리에 들어서면 조금은 색다른 카페 '티 포 투(Tea for Two)'는 이미 차 애호가들 사이에 동호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명소. 동호회 회원만도 벌써 300명을 헤아린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종로의 특성상 대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티포투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기모임과 '말차 강의' 같은 특강을 열어 일반인들이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의 최대 자랑거리는 무엇보다 질 높은 차. 뉴욕의 유명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차 재료를 공급하는 차전문 도매상 '세렌디피티'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아삼, 블랙베넷 등의 홍차와 우롱차, 녹차 등 40여 종류의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 차를 주문하려면 일단 종업원이 견네주는 나무상자를 열어봐야 한다. 상자에 들어있는 15종류의 작은 유리병 안의 향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나서 마시고 싶은 차를 고르는 것.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각자 1인용 주전자에 차가 담겨져 나온다. 작은 모래시계로 시간을 맞춰 차물을 우려 마시는 것도 젊은 고객을 사로잡는 아이디어다.(02-735-5437)

이밖에 이화여대 정문입구에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 차 전문점 '티앙팡'(02-364-4196)에서는 200여 종의 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신촌의 카페 '리데'(02-392-0836)는 홍차를 전문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제 차문화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젊은이들의 여가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젊은이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만큼이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티 뮤지엄'에서는 100여 가지 차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다.

차맥 지킴이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박물관장, 김병원 행정원장, 가천·경인문화대학 학장...

그를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74) 이사장은 자신을 '차(茶)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인 규방다례(閔房茶禮) 기능보유자이자 40여 년간 우리 차문화 보급에 앞장 서온 이력에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읽을 수 있다. 22일 '제4회 인설 차문화전'을 성황리에 치른 이 이사장을 만나 우리 차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알마 전 차문화 보급에 앞장 서온 공로로 '제35대 신사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감은?

"불과 20~3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차산업은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차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문화를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도 많습니다. 때문에 차문화협회에서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차문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우리 전통 차를 찾아서'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2만 어린이들에게 차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을 높게 평가해 준 것인만큼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통해 2천여 다도사범 배출

진정한 차인 정신 봉사로 승화

"한국차문화협회는 1979년 설립된 '한국 차인회'를 시작으로 다신계를 거쳐 1989년 지금의 단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우리 차 마시기' 운동을 펼친 후 차인들의 화합과 차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현재 전국 15개 지방과 미국 미네소타, 인도네시아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차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2천여 명의 다도 사범을 배출해 차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입니다. 규방다례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행하는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茶飯事)를 말합니다. 즉, 손님을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를 내고 다담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것이죠. 이러한 규방다례는 전통과 예절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절절을 중시하는 다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차문화협회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차문화협회가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올바른 '차인 정신'을 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진정한 차인의 정신은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낮추게 되고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차문화협회에서는 차의 맛과 맛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차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봉사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령 기자

우리카

옥로우전

40년 역사의 화계제다(대표 홍소술)의 '옥로우전'은 매년 4월 곡우 전에 나오는 지리산 순수 야생차의 어린순을 전통 제다법으로 만든 대표작으로, 야생차의 맛과 향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계제다의 2001년 한국차인연합회가 주최한 '올해의 명차'에 선정됐으며 '2001 세계명차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값 10만원. (02)871-2845

한국차문화협회 제주도서 헌다식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27~29일 '추사 김정희 선생·마라도 지신께 드리는 헌다식' 봉행을 위한 제주도 답사를 떠났다. 해상왕 장보고의 열이 서린 제주 범회사에서 듣는 주지 시몽 스님의 차문화 특강, 오설록 차(茶)박물관 탐방, 추사 김정희 적거지 헌다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답사 안내는 이형석 '차문화' 편집주간이 맡는다. 참가비 28만원. (02)733-8818

김창배 화백<차한잔의 인연>

인사동 담원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창배 화백이 지난해 선보인 <차 한잔의 풍경>에 이은 두 번째 책 <차 한잔의 인연>을 펴냈다. '차만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그동안 그려온 다화 작품 140여 점과 글이 담겨 있다. "차 한잔 속에 우주 만상의 진리가 담겨있다"는 김 화백은 "차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한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망이 발원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역운화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년 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년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사 문의 (02)723-0909

전통염주소원성취척척2가지소원만기원하면복이온다.북한명산에서산출되는희귀염주입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동동 177 (명정) 0406호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1주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하만 TS에서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꽂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년무야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규격 8.5x5.2x2.0cm) 가격 58,000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독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격 : 20,000원

CD : 2ea set
가격 : 10,000원

1주년 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로

- 팩키지 I | 디지털불경 룸비니 + 테이프 8개 + CD2개 특별가 58,000원
- 팩키지 II | 디지털불경 룸비니 + CD 1개를 특별가 39,000원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2-0880
입금구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